

광주연구원, 市·산하기관 연구과제 별도수당 ‘논란’

기본연구비 외 외부용역비 수령 총 4억3000만원...1인당 1866만원 “기본연구 소홀, 외주 치중” 우려 연구원 “용역 최소화 노력할 것”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광주연구원이 연구직 직원들에게 기본 연구과제 수행비 외에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서 의뢰한 용역과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남도와 8년간의 동거를 끝내고 지난해 9월 독립한 광주연구원이 1년간 기본과제와 함께 시 산하기관의 용역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당 평균 3466만원 수준의 연구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비는 기본급여와 별도이다.

광주연구원 연구직 23명이 연간 수행할 연구는 총 53개로, 1개 연구에 보통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 평균 2.3회에 달하는 연구가 충실하게 수행됐는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도출됐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광주연구원 연구직들이 수행 중인 기본 연구과제는 45건이며, 연구비는 8억

원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3건의 기획연구는 과제당 4300만원의 연구비가, 21건의 현안연구는 과제당 2300만원, 21건의 현안분석은 과제당 520만원이 책정됐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1600만원으로, 23명의 연구직들은 1.9건의 연구를 수행하며 30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하는 셈이다.

광주연구원의 연구비 수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별도의 비용을 주고 맡기는 용역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산하기관은 용역과제를 민간 대신 광주연구원에 의뢰할 경우 10~30% 가량 저렴하고 원하는 날짜에 납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의뢰 건수가 많았지만 점차 줄어들어 총 8건에 이 중 3건은 보조금 사업이다. 해당 용역과제 연구비는 4억2930만원으로 건당 평균 5366만원이며, 광주연구원 23명이 전원 투입됐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당 1866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결국 기본연구와 용역연구를 합하면 산술적으로 전체 53건의 과제에 12억2900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돼 연구직 1인당 연구 2.3회에 3466만원의 별도 연구비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주연구원이 별도로 돈을 받고 외부 위



AICON 광주 2024 개막 강기정 광주시장과 서용규 시의회 부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등이 30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 'AICON(아이콘) 광주 2024'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관련기사 13면

나건호 기자

탁 연구를 하는 이유와,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데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오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자치위 소속 당시 연구원의 연구비·수

당 문제를 지적했었다. 시와 연구원 간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논의 과정이 없고 시·출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의뢰한 점을 예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용역으로 연구원들의 업무 과부하 등이 초래됐다. 광주는 연구원 1

인당 수행 연구과제가 2.4개로 타 지자체 연구원(평균 2.0 미만)보다 많다”며 “연구 질 저하 등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광주전남연구원’이라는 통합기관을 이유로 업무 보고만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 2면에 계속 노병하·정성현 기자

‘광천터미널 부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 확정

광주시가 광주신세계 확장과 관련, 광천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지난 8월 광주신세계 측이 광주시에 제출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사업계획)’를 검토한 뒤 협상대상지 선정에 대한 주요 협상조건을 자문했다.

광주신세계 사업계획에는 1단계 신세

계백화점 확장(2026년~2028년), 2단계 문화·상업·업무·교육·의료시설과 특급호텔을 갖춘 터미널 복합시설 조성(2028년~2033년), 3단계 주거복합시설 건립(2033년~2037년)이 담겼다.

광주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전문가 합동 전담팀(TF) 운영,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과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요

협상조건을 확정, 광주신세계 측에 통보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조건은 △사업이 행력 확보를 위한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사업 병행 추진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 제시 △터미널 이용객 편의성 극대화 △광주만의 특색있는 복합용도 도입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의 교통 개선대책 마련 등이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광주시의 협상조건

시, 백화점-터미널 병행추진 제시 광주신세계, 주요 협상 조건 수용 본협상 착수...6개월 이내 마무리

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접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광주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터미널 복합개발 랜드마크’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신세계 측이 협상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착수하고, 6개월 이내 협상을 마무리할 계

획이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광주시와 민간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제안된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양측의 이해 교환, 실질적 협상 시행,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천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공공성·투명성·신속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광주만의 특색을 담아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광천권역의 교통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라남도

OK! Now Jeonnam

OK! Now Jeonnam 전남으로 가자

OK! Now 전남을 주목하자

OK! 이제 전남이 세계로 웅비한다

New Opportunity With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